



2026년 1월호

표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를 안고 우리 국가의 표식이며 상징인 공화국기를 가슴 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어리여 있다.

사진 김성철

2 || 새해를 축하합니다

일화

3 || 위민현신의 나날에

4 || 새해에 인민이 확신한것은

좌담회

8 || 단결된 애국의 힘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0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12 ||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수기

13 ||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14 || 경모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15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7차대회와 재중조선인 청년협회 제6차총회 진행

조국의 품에 안겨

20 || 《조선웃집어머니》



4



20



22



30



38



44

고향소식

- 22 || 조선동해기술의 새 절경, 락원포
- 26 ||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 28 || 신옹을 중시하여
- 30 || 대안땅의 축산기지를 찾아서
- 33 || 주목을 끄는 나노무기항균제
- 34 || 2개의 박사메달
- 36 || 효능높은 의료기구개발로
- 38 || 위인의 모교라는 긍지를 안고
- 40 || 4월15일소년백화원을 찾아서
- 42 || 건강에 좋은 검은도라지제품들
- 44 || 조국의 영예를 떨진 체육인들
- 48 || 새집들이풍습에 비낀 어제와 오늘
- 50 ||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 (5)
- 52 || 우리 선조들의 슬기의 산물 《훈민정음》
- 53 || 해뜰음무늬금동장식품
- 력사인물
- 54 || 표준음-12률관을 정립한 박연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새해를 축하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동포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 《금수강산》편집부는 누가 보건말건 변함없이 애국의 한길을 걸어가고 있는 해외동포여러분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잡지 《금수강산》을 애독해주고 편찬에 적극적인 조언을 준 독자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보냅니다.

이 순간 우리 서로 따뜻한 눈길들은 주고받지 못해도 뜻으로 통하는 마음만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두터워짐을 가슴뿌듯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포여러분의 이름과 나이, 성별,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애국이라는 두 글자가 소중히 자리잡고있기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창건 80돐과 조국해방 80돐을 성대히 경축한 지난해에 여러분은 조국 인민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월의 명절과 4월의 명절을 비롯하여 여러 국 가적명절들과 중요계기마다 여러분은 축하단을 끊고 조국을 찾았으며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도 보내여왔습니다.

특히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세대가 바뀔

수록 조국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부르면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에도 올랐고 두차례나 재중 조선공민자녀방문단을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2025년을 조국력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달리는 조국인민들과 걸음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지성을 다해왔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 한해를 보내고 더 큰 행복이 마중오게 될 새해를 맞이하고보니 동포여러분과 함께 우리모두 굳게 손잡고 신심드높이 걸어가야 할 희망의 길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믿고싶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새해에도 조국인민들과 발맞추어 더 힘차게 보폭을 내짚으리라는것을.

우리 《금수강산》편집부는 올해에도 잡지를 통하여 조국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널리 소개할것이며 동포여러분의 애국활동도 지면에 아낌없이 담을것입니다.

동포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만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일화

위민 협선의 날에

한 시험포전을 찾으신 날에

2015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농장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새 먹이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정보당 생산량과 영양가에 대하여 일일이 묵론하시고나서 축산업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도 종자를 가져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하시였다.

농장일군들은 자기들이 육종재배연구를 잘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키겠으니 그런 험한 일은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다고 아뢰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하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히 먹이자면 자신부터 팔을 걷고 손을 적셔야 한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매일 고기를 먹일수 있다면 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라주시려는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비낀 그이의 말씀이였다.

떠나고싶지 않다고 하시다

2017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파일군에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파일대풍을 이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몸소 군을 찾으시였다.

백리청춘파원에 펼쳐진 밝은 사파바다를 기쁨속에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군의 책임일군에게 올해 정보당 파일평균수확고가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정말 기적이라고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다음해에는 더 많은 파일을 생산하려는 파일군의 결의를 기쁨속에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좋다고, 자신과 약속했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 사파알들이 주렁진 호원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파수 연구소에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파수연구소 시험포전을 돌아보시며 새 품종의 파일나무시험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파업을 주시는 그이께 동행한 한 일군이 점심시간이 펴그나 지났는데 너무 무리하신것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파일대풍을 마련한 파일군을 돌아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지는것같다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정말 떠나고싶지 않다고 하시였다.

거듭 강조하신 문제

2025년 1월 어느날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인민을 위해 고여온 진정이 열매를 맺어 성천군과 재령군을 비롯한 20개 시, 군에서 련이은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가지게 되는것은 새해의 보람찬 려정을 시작하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온 나라의 경사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시범적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지방공장들의 운영과 제품생산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 원칙과 방도적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시, 군의 당 및 정권기관들에서 원료문제와 기능공양성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조건보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무조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물질적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서해에 인민이 확신한 것은

조국의 역사에 또 한돌기 년륜을 새기며 희망찬 새해 2026년이 밝아왔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굳건함과 전도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인민의 기쁨이 조국땅 방방곡곡에 넘치고 있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 시점에서 인민은 지나온 열두달에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얻었으며 자기들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돌아보고 있다.

2024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사업의 총적 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2025년 1월 2일 새해에 즐거워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이께서는 며칠 후 나라의 자위력강화를 위한 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새해 정초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이의 현지지도는 온 한해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으로 이어지시였다.

지난해 2월에만도 그이께서는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들에 련이어 참석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2월은 착공의 달로 통용되고 있다. 지방인민들도 수도시민들 못지 않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그이의 구상에 의해 지난해 2월에도 신양군,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구성시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황주군 지방공업공장과 량곡관리소건설착공식들이 진행되었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로 인민들에게 만복이 차례지게 하시려 그이께서 찾고 찾으신 건설장들과 단위들은 얼마인지 모른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과 온포근로자휴양소신설공사장,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장,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장, 구성시병원건설장…

이렇게 이어가신 려정에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운영과 제품생산에서 틀어쥐고나갈 원칙과 방도적 문제들을 가르쳐주신 이야기들과 전국적 범위에서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과업과 원칙들을 밝혀주시던 날들도 있었다.

그이께서 온 한해 인민을 위해 출기차게 이어가신 려정에서 국가경제전반이 장성추이를 확고히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들이 이룩되었다.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과 수많은 농촌살림집들이 솟아오르고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은파군 지방공업공장을 비롯한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이 련이어 준공되었다. 그리고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 도처에서 새집들이 경사로 흥성이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손색없이 완공되어 명사십리에 인파십리가 펼쳐졌으며 삼지연관광지구건설이 힘 있게 전개되고 평양종합병원이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실체로 준공된것을 비롯하여 문명을 상징하고 국가의

2025년에 이룩된 성과들의 일부



배천군 지방공업공장과 김정숙군 지방공업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이 전국각지에서 련이어 준공되었으며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이촌문화주택지구가 훌륭히 일떠섰다.



비약적인 전진상을 체감케 해주는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그런가 하면 조국해방 80돐과 공화국창건 77돐, 당창건 80돐을 비롯한 여러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국가는 자기의 존엄과 위상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인민은 자존과 자력 번영의 의지를 배가하였다.

진정 지난해에 이룩된 이 모든 성과야말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인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하다면 그이께서 지나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세계, 위민헌신의 의지는 과연 어디에 그 원천을 두고있는것인지.

인민을 하늘로 여기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에 있다.

이렇듯 열렬한 감정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그리도 헌신하시는것이다.

아직 부족한것이 많고 또 앞길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방대한 파업들이 나서고있지만 인민들의 숙망이자 우리 당의 숙원이라는 불변의 의지를 지나고계시는 그이이시기에 전국의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제공하고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이렇듯 로고를 바치시는것이다.

시, 군병원건설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살림집이나 산업건물에 비해 몇십배의 품이 들고 값비싼 자재,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은 풍족한 나날에도 결심하기 어려운 결단을 주저없이 내리고 착공의 폭음들을 울리였다.

보건시설과 종합봉사시설, 량곡관리시설건설의 3대필수대상건설이 추가병행됨으로써 력대초유의 지방발전정책의 폭과 심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였다.

이 땅우에 무수히 솟아나는 창조물들과 더불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리상과 포부에는 한계가 없다.



지난해 적대세력들의 도발적인 전쟁연습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난관은 적지 않았다. 더욱기 수도와 농촌에 방대한 건설들을 펼친것을 비롯하여 여력을 내기도 힘든 때에 3대필수대상건설을 병행시킨다는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려정에서 순간의 답보도 용허하지 않으시였다. 오히려 우리 당은 엄혹한 조건과 불가능의 한계에 도전하여 기적적실체들을 속속 이루어냈으며 더 휘황한 래일을 당겨오고있다.

우리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들은 정녕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하늘처럼 여기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으시는분,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는 그이께서만이 결행하실수 있는 중대국사이며 력사적대업인것이다.

그이께서는 2025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도 농업증산과 농촌발전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간식지농장들을 현대적이고 문명한 농촌으로 개변시킬데 대한

문제, 교육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사업에 도, 시, 군들이 주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참가할데 대한 문제 등 나라의 전망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와 사상도 뜻도 숨결도 하나가 되여 사회주의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것이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지난해의 무수한 도전의 고비들을 헤치면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억척으로 자리잡은것은 그이를 높이 모시여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영광도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2025년 현지지도로정을 더듬으며, 희망찬 새해의 려정을 내다보며 우리 인민이 가슴깊이 간직하는 한결같은 마음이다.

글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 평양 종합병원
2025년 10월 준공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2025년 6월 준공



도처에 수많은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섰다.

단결된 애국의 힘으로



강기철
금속공업성 국장



김주연
농업위원회 국장



박명식
건설건재공업성 국장

기자: 새해 2026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인민은 누구나 궁지스럽고 보람찼던 지난해를 감회깊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 해인 지난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렇게 여러분과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강기철: 예. 전면적 국가발전이 힘있게 추진된 지난해에는 어느 부문이나 할것없이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며 부글부

글 끓어번졌습니다.

우리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의 전 공정에서 과학화수준을 높여

나갔으며 생산의 모든 요소에서

기술지표들을 개선하고 실수률

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

하고 에너르기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의 운영기술을 향상시켜 철생산을 늘릴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에서도 현존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철강재와 삼화철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였습니다.

김주연: 우리 농업부문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지난해 재해성이상기후가 계

속되었지만 전국의 모든 농장들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야마다 흐뭇한 농사작황을 펼

쳐놓았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문화를 백미밥과 밀가루음식을 위주로 바꿀 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밀뒤 그루로 발벼를 재배한 결과 박천군에서는 총적인 벼생산량을 지난 시기보다 천수백t이나 더 늘어였으며 정주시 남호농장에서는 정보당 7t 이상의 소출을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이 증가되어 농업생산에 활력을 부어주었으며 과학농사 열풍속에 유기농법, 논환경 등을 적극 받아들이고 저수확

지를 비롯한 농경지들을 옥토로 전변시켜 다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청단군 마룡농장의 청년분조만 보아도 10정보의 포전에 새로운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2t 이상의 알곡을 증수하였고

염주군 내중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농업정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박명식: 지난해 년초부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의 호소따라 중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우리 건설건재공업부문에서도 자랑할만한 성과들이 이룩 되였습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소성로의 가동일수를 높이면서도 정기보수를 일정계획에 따라 진행하여 매월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천내리 세멘트공장에서는 부유예열식

생산공정을 부유가소식생산공정으로 전환하고 세멘트생산능력조성에서 관건적고리인 크링카랭각기설치와 배풍기제진장치보수를 최단기간내에 끝내였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리용한 내화벽돌생산공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자: 금속, 농업, 건설부문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부문이 다같이 용을 쓰며 일어서는 경이적인 성과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애국의 정신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철: 옳은 말입니다. 당에서 제일로 관심하는 문제, 국가가 절실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며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높이 세운 철강재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애국의 열정을 그 어느때보다 비상히 발휘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말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한창 용을 쓰며 쇠물을 끓이던 용광로1직장의 산소열법용광로에서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가 되였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로의 가

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작업반장을 비롯한 공장의 오랜 기능공들은 절대로 로를 세울 수 없으니 자기들이 해내

겠다고 나섰습니다.

로동계급의 이렇듯 굴할줄 모르는 정신력에 의해 용광로는 다시 정상가동되었고 그날 선철생산계획이 드팀없이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김주연: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거둔 성과를 보면 농업근로자들의 경쟁열의가 더욱 고조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의 공통점은 알곡증산의 예비를 남의 도움이나 국가적지원이 아니라 집단적경쟁에서 찾고 대중의 애국적열의를 부단히 고조시킨 것입니다.

박명식: 제 집일보다 나라일을 더 걱정하고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 하려는 인민들의 강렬한 애국의 힘, 단결의 힘은 날로 비상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맡은 일터는 서로 다르고 나이와 경력은 각이하여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다 바치는 우리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날에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기자: 오늘 우리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들의 애국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주어 감사합니다.

* *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전호에서 계속)

산천과 함께 사람들도 성장하고 혁명도 전진하였다. 우리가 이 고장을 다녀간 후 륙읍일대와 그 주변에서는 새로운 반일혁명조직들이 련속적으로 태여나 활동을 개시하였다.

륙읍지구의 투사들은 치안유지를 담당한 일본군부와 경찰수뇌들이 국경경비의 만전을 자랑하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혁명조직이라는 거대한 강철그물로 적의 통치기구를 포위하고 있었다.

우리의 무장투쟁도 성장하였다. 유격대무력은 동만지방만 보더라도 대대급으로 발전하였다. 각 현에 있는 대대들은 오래지 않아 련대로 되고 사단으로도 될것이다. 유격전쟁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력은 남만에도 있고 북만에도 있다. 우리의 사단들과 군단들이 조국땅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철추를 내릴 그날은 머지않았다. 별씨 우리가 그 선견대로 이렇게 온성땅에 나오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창덕학교시절에 외할아버지한테서 배운 남이장군의 한시를 입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았다.

백두산석 마도진 (白頭山石 磨刀盡)
두만강수 음마무 (豆満江水 飲馬無)
남아이십 미평국 (男兒二十 未平國)
후세수칭 대장부 (後世誰稱 大丈夫)

이 시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된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외할아버지는 그때 나에게 남이장군이 북관의 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20대에 별씨 병조판서가 되었다고 하면서 성주도 크거들랑 왜놈치는 대장이나 선봉장이 되라고 말씀해주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이장군이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데 대하여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크면 남이장군처럼 외적을 치는 선봉에 서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싸우리라고 결심하였다.

(남이장군이 륙진에 의거하여 북적을 막았다면 우리는 륙읍의 반유격구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고 일제가 멸망할 함정을 파놓으리라!)

나는 왕재산마루에서도 이런 맹세를 다지였다.

왕재산에 모인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은 나에게 국내형편과 그동안의 활동정형을 보고하였다.

나는 륙읍을 비롯한 북부국경지대에서 항일혁명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고무해주고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앞에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사업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내가 력점을 찍어 강조한것이 반유격구창설과 관련된 문제였다. 우리는 그때 온성일대를 중심으로 국내의 여러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고 동시에 무성한 청립지대들에 비밀련락장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활동거점들을 마련함으로써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쌓으려고 하였다.

왕재산회의에서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과 대중운동과 당창건준비사업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국내혁명조직들의 사업도 토의되었다.

유격대의 온성진출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서막으로 되었으며 민족해방투쟁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였다. 이 진출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것이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신성한 임무이며 절대적인 권리라는 움직일수 없는 신념과 립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온성진출과 왕재산회의의 전과정은 완전유격구주변과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할때 대한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것과 간도와 륙읍일대에 반유격구를 건설할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왕재산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경원(새별)의 류다섬과 박석골, 종성군 신흥촌 금산봉을 비롯한 국내 여러곳에 진출하여 회의도 하고 강습도 하고 정치공작도 하였다. 이 진출의 주요 목적은 국내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에게 지하혁명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법을 배워주려는데 있었다.

우리가 국내에 나가서 혁명가들을 자주 만난것은 그들을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사업방법으로 무장시켜 복잡한 실천투쟁을 용의주도하게 이끌고나갈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자는 데 있었다. 국내혁명조직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잘 준비시키는것은 반유격구를 성과적으로 꾸리기 위한 선결조건이였다.

그 당시 우리가 파견한 지도핵심들은 국내깊이에 침투하여 반일항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로조, 농조들에 뿌리를 뻗치였으며 도처에서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부조선일대에도 줄을 늘이였다.

륙읍지구의 반유격구들을 튼튼히 꾸리고 국내혁명운동을 양양시키는데서 두만강연안에 꾸려진 당조직들은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그후 동만의 지도간부들은 반유격구건설에 관한 우리의 제안을 방침으로 채택하고 그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다. 반유격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대하여 우경이라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비평은 즉석에서 신랄한 반격에 부딪쳤다.

동만의 쏘베트구역들에서는 1933년 봄부터 반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라자구, 다홍왜, 전각루, 량수천자 등 왕청지구와 연길, 훈춘, 안도, 화룡지구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가 꾸려졌다. 이 시기에 창설된 반유격구들은 항일무장투쟁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완전유격구들 가운데서 방어하기에 불리한 일부 지역들도 반유격구로 전환시키였다.

만주국이 내세운 툰장들 가운데는 우리를 지지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라자구 같은 곳은 시내에서 한발자국만 나와도 다우리 세상이고 우리편 사람들이였다.

반유격구건설경험과 그 로선의 정당성은 그후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유감없이 증명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큰 봉을 맡아하고 있다.

최근년간에도 청년들은 화성거리와 림홍거리, 전위거리를 시대의 건축물로 홀륭히 일떠 세운데 이어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에서도 위훈을 세웠다.

우리 청년들이 새겨온 위훈의 그 자욱마다에는 푸르른 깊음을 초석으로 고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마음이 숨배여 있다.

지난해에도 우리 청년들은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어렵고 힘들수록 당이 청년들을 지켜본다는 자각, 청춘의 땀과 열정을 다 바쳐 시대의 건축물을 홀륭하게 일떠세울 마음속각오를 더욱 가다듬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의 서북면으로 달려왔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착공식에서 동무들이 용솟는 깊음과 열정으로 빛내일 창조의 날들에, 고결한 정신과 기세찬 보무로 찍어갈 분투의 자욱들에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격려사를 받아안은 우리 청년들의 기세는 보다 충천하였다.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한결같이 터친 웨침이였다.

장마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고 때없이 휘몰아치는 세찬 강바람에 의해 공사에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어도 우리 청년들은 영웅청년이라는 고귀한 명함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청춘의 자서전에 새로운 혁신과 위훈의 자욱을 큼직하게 새겨나갔다.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천백여동의 온실들과 남새파학연구기지,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려



관 및 편의봉사시설들에 대한 기본공사과제를 완결한 청년들은 마감공사에서도 창조본때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적극 벌어지는 속에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시공의 속도와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효률적인 공법들이 창조되고 이 나날에 수많은 청년들이 발명가, 창의고안명수, 기능공들로 자라났다.

온실종합농장을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홀륭히 완공할 것을 맹세한 우리 청년들의 담찬 기질과 과감한 창조본때에 의해 그 어떤 조수의 흐름보다 더 세찬 격랑이 온 건설장을 진감하였고 어제 날의 높았던 기준들이 련이어 갱신되었다.

실로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애국청년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일념을 안은 청년들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과 농촌살림집건설장들마다에서 위훈을 새겨가고 있다. 매일과 같이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농촌과 탄광, 수산부문으로 탄원 진출하고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데서 청춘을 바쳐갈 일념 안고 섬분교와 산골학교들에 교원으로 자원해가는 청년들에 대한 소식은 만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렇듯 애국과 청년은 조선청년들에게서 떼여놓을수 없는 부름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향해가는 조국앞에는 의연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더욱 힘차게 나갈것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과장 최정민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나날들이 어제런듯 방불히 떠오르군 한다.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에서 연설하시며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조직대표들도 열렬히 축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우리 총련합회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우리들 인데 그이께서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누구보다도 그 수고를 헤아려주시였으며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조국을 위해 한 일이 적은 자신이 송구스럽고 민망스럽기만 하였다.

지난 몇년간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로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조국은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더 많은 일거리들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실천에 구현하였다.

조국에는 새 거리들과 병원, 온실농장들이 키돋움하며 일떠섰다. 방문기간 나는 화성거리, 전위거리를 비롯하여 새 거리들에 가보았고 독특하게 일떠선 화성대동강맥주집에서 맥주맛도 보았다.

누구나 절로 단풀손님이 되여 떠날줄 모른다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웃음넘친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을 볼수록 가슴뜨거워졌다.

우리 조국에 무엇이 남아돌아가서, 조건과 환경이 남들보다 좋아서 이룩된것이었던가.

아니였다.



다면 무엇이 그토록 누구나 쉽게 이룩할수 없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인민이 바란다면 저하늘의 별도 따라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민현신이 안아온것이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목소리에서 새로운것을 구상하시고 설계하시는 우리의 어버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아무리 훌륭한것, 최상의것을 마련해주었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을 모르신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끊임없이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고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적인 실천으로 빛나는 결실을 안아오시는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복받은 인민의 세월이 흐르고있다.

하기에 우리 재중동포들은 이런 조국을 둔것을 자랑으로, 궂지로 여기고있다.

우리는 비록 몸은 멀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함께 있다.

한걸음을 걸어도 조국을 위한 걸음을 걷고 하나의 생각을 해도 조국을 위한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다.

어렵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럴수록 부강해지는 조국의 모습에서 새라새로운 힘을 얻고있다.

이것은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중동포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인민을 위해 멀사복무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

경모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김영옥(오른쪽으로부터 첫번째), 량금해(가운데),
본사기자 엄향십(왼쪽으로부터 첫번째)

얼마전 본사기자는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들인 김영옥, 량금해동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국을 방문한 동포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해마다 2월이 다가올수록 조국땅 어디서나 경축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영옥: 해외의 우리 동포들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이 다가올 때면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경축하여 다채로운 행사준비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밀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주최로 보고회가 열리고 각 협회들에서 영화감상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경축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우리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그럴 때면 나자신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가까이에 있는

때문입니다.

우리 장백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만 보아도 항일의 그 날이 떠오르고 백두의 눈보라소리와 종포성을 자장가마냥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 생각에 눈굽이 젖어들군 합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장백에서 사는 동포들은 2월과 4월의 명절을 가장 큰 명절로 경축하는 것은 물론 혁명사적들을 보존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에 와서 조선예술영화 『백두의 봇나무』를 보면 백두의 혁명전적지를 지켜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니 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지부 동포들은 모두가 혁명전적지를 지켜가는 장백사람이라는 궁지를 가지고 조국을 위한 일을 더 많이 찾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는 길림지구협회 장백현지부 지부장으로, 나는 부지부장으로 사업하면서 동포들의 애국열의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자: 정말 몸은 멀리 이역에 있어도 조국인민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동포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신뢰와 경모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체류일정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백은 항일혁명투쟁의 자욱이 력력한 곳이기

글 엄향십, 사진 리영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7차대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제6차총회 진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7차대회가 12월 7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총련합회 일군들, 산하 지구협회 회장, 지부장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약되였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규약 수정에 대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새 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의 3가지 의정이 토의되었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은복의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총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지난 기간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부강조국의 찬란한 래일과 재중동포들의 존엄과 빛나는 삶,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폐부로 절감한 나날들이였으며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여온 애국충성의 나날들이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담대한 배짱과 비범한 예지,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더욱 로끌화되는 제재책동과 악성비루스감염차단을 위한 비상방역사태속에서도 인민의 리상이 꽂된 현대

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휴양지들을 홀륭히 일떠세우는 력사의 신화를 창조하심으로써 주체조국의 무진막강한 힘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시였다고 그는 칭송하였다.

그는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해외동포 중시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책정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재중조선인들이 그 어떤 정치풍파속에서도 애국충성의 길을 끗끗이 걸어올수 있게 한 자양분이였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였다고 격찬하였다.

보고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종결기간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 대해 언급하고 이번



김승미 재중조선인
총련합회 회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채택모임파 표창장, 감사장수여식 및 기념품 전달이 있었다.

대회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해외공민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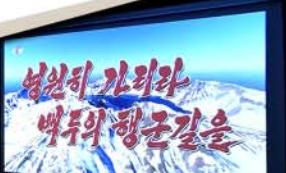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해외동포 중시사상을 구현해나가며 동포권익옹호, 새세대 육성, 민족성 고수의 3대 주력사업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판철해나감으로써 절세위인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주체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파업들을 제기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공민들도 두가 결성세대들의 순결한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철저히 계승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며 조직강화와 애국사업에 심혼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총련합회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조직을 튼튼히 꾸려나갈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공고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앞에 나선 파업은 방대하고 조건과 환경은 어렵지만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주체적인 해외동포운동사상이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공화국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차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 지구협회, 지부들에서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료녕지구협회에서

길림지구협회에서



조선기록영화상영이 있었다.



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나아가는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총련합회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모든 일군들과 공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필승의 신심드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재중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 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경축공연과 연회가 있었다.

대회에 앞서 6일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제6차총회가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청년협회사업을 총화한 다음 수정보충된 조직규약을 채택하였으며 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였다.

글 전룡진, 사진 김성철





《조선옷집어머니》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이 보내온 감사편지

『<조선치마저고리집어머니>, 바쁘신 속에서 도 우리를 위해 조선치마저고리를 만들어주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조국의 사랑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면 이 저고리를 입고 교단에 서겠습니다.』

『내 입에 맞게 닭곰이며 맛있는 음식을 해온분이 <조선치마저고리집어머니>인줄 몰랐습니다.』

『<조선옷집어머니>가 노래 <너는 나의 사랑>을 작사, 작곡한 선생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2024년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 학생들이 쓴 편지들의 일부이다.

그들이 잊지 못해하는 『조선치마저고리집어머니』, 그는 바로 총련 아도반스주식회사 평양 대리지사 지사장 리선희이다.

우리와 만난 리선희지사장은 밝게 웃으며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하는 말만 끊씹었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사태로 하여 조국에 올수 없었던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2024년 평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리선희지사장의 마음은 기뻤다.

조선대학교라는 말만 들어도 그는 한생을 총련의 교육사업을 위해 온넋을 바친 아버지를 생각하곤 하였다. 그리고 물설고 낯설은 이역땅에서 동포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며 하시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모습도 그려보곤 하였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아왔고 또 선대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리선희지사장은 총련의 대를 계승해야 할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다.



더 고운 조선치마저고리를 안겨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리선희(왼쪽으로부터 세번째)

그는 깊은 생각끝에 조선사람임을 상징하는 조선치마저고리를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매 학생들의 몸을 재였고 그들이 천과 색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저고리의 색깔은 어떠하든 고름은 흰색으로 하여 정갈해보이도록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 학생이 리선희지사장에게 자기는 새옷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져온 옷을 입겠다면서 할머니때부터 물려온 낡은 치마저고리를 꺼내놓았다. 순간 리선희지사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펑그르르 돌았다.

『네가 오늘 제일 아름답구나. 할머니가 만들고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새세대인 네가 입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조선사람의 넋은 그렇게 이어가야 한다. 내가 이제 이 옷을 새옷처럼 만들어주겠다.』

지사장은 약속한바 그대로 그 학생에게 할머니의 조선옷과 새로 지은 조선옷을 안겨주었다.

1차, 2차 조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차수가 늘어날수록 리선희지사장과 그곳 일군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조선옷제작에 달라붙었다.

그는 설맞이공연에 참가하는 재일조선학생 소년예술단 성원들의 치마저고리도 도맡아해주었다.

너무도 고운 치마저고리를 받아안고 학생들은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고 선생님들은 응당한 값을 치르려고 하였다.

리선희지사장은 만류하였다.

『이 옷이 어느 일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의 사랑입니다. 조국의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나자신도 이 크나큰 사랑속에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던 그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조국의 품에 안기는 순간부터 크나큰 사랑이 그를 감싸안았다.

돈 한푼 내지 않고 교육을 받은것은 물론 철따라 꼭꼭 새 교복을 입었다. 소질과 재능에 따라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꽂피울수 있어 그는 평양 음악무용대학(당시)에서 공부할수 있었다.

졸업후 어느한 음악단에서 가수로 생활하면서 그는 조국에 대한 많은 노래를 불렀으며 작사, 작곡도 하였다. 그 대표작이 TV곡 『따뜻한 우리 집』에서 나오는 노래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라가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불빛 꺼질줄 몰랐던 평양산원, 그곳에서 자식을 낳은 그는 변함없이 산모들에게 돌려지는 혜택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의 크나큰 사랑이 아이들의 꿈을, 밝은 앞날을 지켜준다는 노래가사가 절로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그 것을 그대로 꾹에 담았다.

지금도 이 노래는 평양산원을 나서는 여성들이 즐겨 부르고 있다.

그후에도 많은 음악작품들을 편곡하고 창작하여 총련의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조선사람의 넋과 숨결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였다.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선치마저고리집어머니』, 『우리 음악선생님』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리선희의 애국적소행은 TV무대에서 소개되었다.

조선동해기슭의 새설경, 락원포

동포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키
채길은 얼마전 조선동해기슭의 바다가에 자리잡
고있는 함경남도 락원군에로 이어졌다.

우리가 락원군을 선정한것은 지난해 8월 조선
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에 의해 이 지역의 명당
자리에 현대적인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해
안지대의 특색이 살아나는 어촌문화주택들이 일
떠서 그야말로 천지개벽되였기때문이다.

하기에 이곳에 태를 묻었다는 홍일명재중동포
도 고향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우리의 눈에 안겨든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양식모선과 양식배들이 늘어선 부두, 소층, 단층
의 각이한 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은 지역환
경파도 잘 조화되어 참으로 장관이였다.

락원포의 류다른 정취에 반한 우리는 먼저 포
구에 틀지게 들어앉은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우리와 만난 지팡호지배인은 《우리 고장에
이처럼 바다가양식업의 본보기적실체가 일떠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서두
를 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월에 건설의 첫삽을

뜨신 그때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차례나 이곳에 찾아오시여 락원군바다가양식
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
세워주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고,
그이의 헌신이 있어 그 옛날 바다물이 밀려나서
생긴 땅이라 하여 퇴조군으로 불리우던 락원군
의 이름없던 포구에 불과 반년이라는 기간에
세상이 부러워할 락원어촌이 생겨나게 되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후더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이어 지팡호지배인은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며 우리에게 바다에 나가보자고
하였다.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서둘러 양식
배에 몸을 실었다.

드넓은 양식장에서는 다시마와 밥조개수확이
한창이였다. 모줄마다에 묵직하게 드리운 다시
마를 거두어들이는 양식공들의 얼굴마다에 흐뭇
한 작황으로 오는 기쁨이 실려있었다. 어떤 배
는 배전에 넘치게 쌓은 다시마로 하여 기울어질
정도였다.

다시마수확을 지휘하던 김준식반장은 《20여
년째 양식을 해오지만 지금처럼 하는 일이 흥겹
고 마음이 즐거워지기는 처음입니다.》라고 말
하였다.

한편 다시마양식장과 떨어진 밥조개양식장에
서도 애써 키운 밥조개를 수확하는 양식공들의
흥성이는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에까지 들려
왔다.

《배전에 조개가 넘쳐난다. 배마다 300kg
은 넘을것같다.》, 《부두에 운반차를 대기시
키라.》

무선대화기로 수확상태를 사업소에 수시로 알
리는 양식공들의 자랑에 넘친 목소리에서 우리는
밥조개를 가득 실은 배들의 무게를 가늠할수
있었다.

풍요한 가을의 기쁨은 양식장에서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였다.

밥조개 및 다시마가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수
확한 다시마와 밥조개가 들어오는족족 가공처리
하고있었다.

지난 시기에는 수산물을 가공하는데서 손로동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그러나 능률높은





설비들이 구비되어 있어 지금은 품이 많이 드는 수산물가공을 손쉽게 할수 있게 되었다고 종업원들 모두가 목소리를 합쳤다.

그런것으로 하여 가공장에서는 종전같으면 여례날이 걸려야 하던 수산물가공을 이제는 단 몇 시간동안에 끝내고 있었다.

하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힘

든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로동은 노래이고 기쁨이라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하는것이였다.

이 고장 사람들의 기쁨넘친 모습은 소총, 단총의 각이한 살림집들, 편의봉사시설들이 자연환경과 특색있게 조화를 이룬 어촌마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참으로 자기들의 일터가 이제는 남들이 부러

워하는 《부자사업소》가 되었다고, 모래바람만 불던 이 고장이 행복의 락원을 소리쳐 부르는 리상적인 문화어촌으로 되었다고 터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락원포의 실상을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포구에는 밤이 깃들었다.

그러나 락원포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는 사회주의락원의 실체를 일떠세워준 당의 고마움을 구가하는 《로동당의 정책은 좋다》는 노래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글 김지성, 사진 김강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

국내에서 2024년 10대최우수기업의 하나로 선정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가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을 생산활성화의 근본담보로 정한 련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계발시켜 폐유재생공정확립과 열처리공정현대화공사를 완결하여 부파된 대상설비생산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련합기업소는 과학기술력의 증대를 확고히 앞세우고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장성시키고 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실천속에서 인재후비들을 찾아내고 기술자, 고급기능공들이 그들을 맡아 키우도록 하는것과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자체의 기술력량이 질량적으로 강화되고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하기 위한 사업이 실속있게 전개된 결과 선반들의 성능이 개선되어 생산성과 가공정밀도가 높아졌으며 용접, 연마작업의 실수률을 끌어올리는데서도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룩되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품질감독소와의 유기적련계 밑에 원료, 자재의 입하로부터 제품의 완성, 출하에 이르기까지 매 공정에서 검사를 엄격히 하는 체계를 세우고 생산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원료,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부문 및 공정 간련계와 협동을 강화하여 모든 생산공정이 원활하게 맞물리도록 하고 있다.

결과 발전설비1가공직장과 2가공직장, 대형기계직장을 비롯한 중요대상설비생산을 맡은 단위

들에서 생산이 활성화되어 일정계획들이 드팀없이 완수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주강, 주물, 단조, 제관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생산단위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그대로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성과에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련합기업소는 수력 및 화력발전소들과 지방공업공장건설에 필요한 설비들의 생산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리광남지배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소는 올해에도 과학기술을 생산활성화의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대중의 전진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해나가겠다.》라고 결의하였다.

글 김지성
사진 리철



천리마자동차무역총회사



신용을 중시하여

천리마자동차무역총회사는 각종 형태의 루전 기재들에 대한 연구와 조립, 판매, 수리, 차부 속품봉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체이다.

1998년에 창립된 회사는 각 분야의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망라한 기술집단에 의거하여 모든 업무활동을 과학적이며 실리있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총회사는 산하에 천리마자동차합영회사와 천리마자동차종합공장, 천리마축전지공장 등 여러



업무단위들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연구소에서는 여러 형태의 자동차들에 대한 도안창작 및 모의해석, 3차원설계, 시제품개발, 재료분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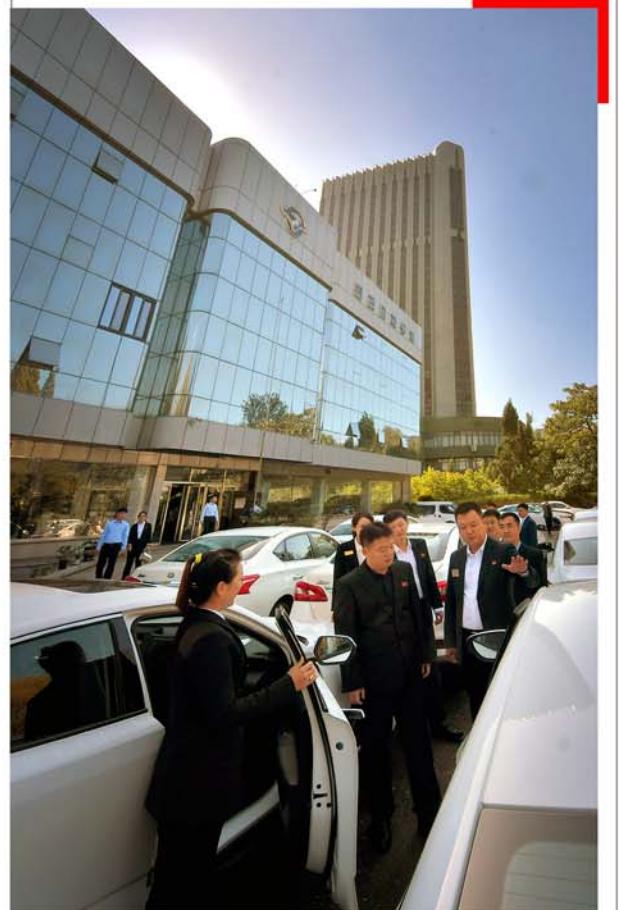
또한 다양한 열람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다.

용접, 도장, 총조립 흐름선과 검사장 등 현대화된 조립공정을 갖추고 있는 천리마자동차종합공장에서는 품질이 담보된 각종 형태의 자동차들을 조립하고 있다.

총회사는 천리마자동차합영회사의 역할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의 정확성, 신속성, 완벽성을 구현하고 있다.

합영회사는 자동차류형별에 따르는 종합적인 수리봉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수리의 질과 신속성을 최대로 보장함으로써 손님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각종 류형의 컴퓨터진단기를 통해 회사는 루전기재들의 고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분석 처리함으로써 진단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있다.



전반적인 경영활동에서 품질을 우선시하여 신용제일주의로 나가는 것이 천리마자동차무역총회사가 중시하고 있는 원칙이다.

글 김성경
사진 김평



대안땅의 축산기지를 찾아서

취재 차를 타고 시원하게 빨어나간 청년영웅도로를 따라 한동안 달리던 우리가 남포시농촌경리위원회 대안젖소목장에 들어선 것은 젖빛 안개가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아침이었다.

그리 높지 않은 등성이를 따라 펼쳐진 방목지의 여기저기서 울리는 젖소들의 영각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정말 한폭의 그림파도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등판의 풍경에 심취되어 사진기의 샤타를 연방 누르고 있을 때 김현철지배인이 다가왔다.

목장위치가 정말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고 경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목장의 방목지면 적만 해도 수백정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에는 젖소들의 사양관리와 젖가공, 젖제품보관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 쯤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들을 먼저 젖소들이 풀을 뜯는 무연한 등판으로 안내하였다. 젖소들이 좋아하는 먹이풀이 온 등판을 뒤덮은 방목지를 오르느라니 잠간사이에 바지아래부분이 아침이슬에 화락하니 젖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이런 길을 매일과 같이 오르내리며 수백정보에 달하는 방목지에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 있는 종업원들의 모습이 더욱 돋보이였다.

방목공 김향립은 모든 방목공들이 풀판조성파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젖소사양관리를 보다 책임적으로 하여 해마다 젖생산량을 늘여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방목지의 전경을 사진기의 렌즈에 담은 우리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보리싹재배장이였다.

젖소작업반 반장 리규상의 말에 의하면 보리싹은 젖소가 좋아하는 영양가높은 먹이중의 하나이며 먹이보장문제가 긴장한 가을부터 봄까지 이것을 이용하면 증체률을 높이고 젖생산도 정상화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계속하여 그는 당의 육아정책이 제시된 다음부터 종업원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깊은 어조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비록 길지 않은 말이였지만 어린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젖제품을 먹이기 위해 애쓰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을 읽어볼수 있었다.

우리가 젖가공실에 이르니 때마침 젖제품을 실으려고 차들이 련이어 도착하였다.

목장에서 생산한 신젖을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운반공들에게 질높은 젖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겠다고 화답하는 젖가공반원들의 얼굴에 넘쳐나는 밝은 웃음을 우리는 무심히 볼수 없었다. 참으로 그 어느 곳을 들려보아도 젖제품생산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목장종업원들의 진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그들이기에 효율적인 인공수정방법을 도입하여 젖소마리수를 늘이고있는것은 물론 10여

정보의 갈밭을 새로 조성하여 먹이보장문제해결에서도 진전을 이루할수 있었다. 해마다 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한 이곳 목장의 종업원들은 올해에도 생산장성을 이루할 일념을 안고 애써 일해가고있다.

정말이지 조국의 미래를 더 잘 키우는데 이바지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들에 의하여 목장은 약동하며 전진하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갈마들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며 우리 어린이들은 얼마나 튼튼해지고 또 부모들은 얼마나 좋아하랴. 그리고 그로 하여 우리의 래일은 또 얼마나 밝고 창창해지랴.

글 김성영, 사진 리석



인체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항균력이 강하고 항균폭이 보다 넓으며 다기능화된 나노무기항균제개발은 오늘 세계적인 열점개발항목으로 되고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속에 조선항성경제련합회 대외기술협조사에서 새로 개발한 나노복합항균제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항균제는 기술적지표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준을 륭가하고있다.

질병예방통제부문과 의학과학부문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보임빛응답형 나노빛촉매재료와 순금속나노재료, 금속산화물나노재료들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나노복합항균제는 생명과 생태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으며 600여가지의 병원성 세균들에 대해서 99. 98% 이상의 억균 및 살균력과 90% 이상의 유해유기물분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증되었다.

지난 3월 이 제품은 국가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다.

성파는 이곳 연구집단이 20여년간 기울인 노력의 결과이다.

연구에서 중점은 항균성을 가진 성분들을 나노크기로 쪼개는것과 함께 나노화된 미립자들이 응집되지 않도록 분산안정화시키는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첨단기술이 요구되었다.

연구집단은 이에 대담하게 뛰여들었다.

이미 나노빛촉매재료제조공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나노재료제조공정기술들과 나노멸균기,

글 김성경
사진 김성철

실내용나노공기정화기 등 많은 나노 기술제품들을 개발하여 우리 나라 나노기술분야에 크게 공헌한 교수 박사인 사장 박학철의 연구성과는 새로운 항균제개발연구에서 큰 밀천이 되였다.

세계적인 연구발전동향과 선진 과학기술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연구들은 탐구를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사장 박학철과 연구집단은 끝내 나노재료의 조성을 설계하고 매 구성재료의 제조기술과 방법을 확립하여 항균력과 유해유기물분해력을 가진 우리 식의 새로운 나노복합항균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년간 수백t 능력의 생산공정도 확립하였다.

100%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은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서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높다.

오늘 나노복합항균제의 리용범위는 계속 넓어지고있다.

각종 기능성항균제품들로 개발되고있으며 여러 질병치료와 의료기구의 소독 등 보건부문과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정화를 비롯한 생태환경, 공업과 농업, 건축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되어 큰 은을 내고있다.

협조사의 개발성과는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주목되고있으며 그에 대한 기술교류와 합작이 적극화되고있다.



새 제품개발에 모를 박고있다.

2개의 박사메달

2003년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졸업
2006년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 졸업
2007년 김일성종합대학 인류진화발전사
연구실 연구사
2016년 지질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음.
2024년 역사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음.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민족
유산연구소 연구사 강분이는
2개의 박사증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30대에 지질학박사,
40대에는 역사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누구나 너성의 봄으로 과학
탐구의 먼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찬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10여년 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에서 석사학위
를 받은 그가 배치된 곳은 역사
학분야였다.

그는 세계적인 문헌자료들
을 열람하면서 사색을 이어나
갔다.

이러한 나날에 외국의 한 학
자가 덕흥리벽화무덤의 벽화색
감분석자료를 발표했다는 소식
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은 꼭
강분이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 같
았다.

그는 역사유적 유물들의 절대
년대측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깨
닫고 열형광년대측정연구과제
를 스스로 맡아나섰다.

열형광법에 의한 년대측정방
법을 리론적으로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그 실천적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장치제작
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지질학과 물리학의 원리와
방법들, 장치제작과 컴퓨터조
종 등 여러 분야는 그에게 있
어서 커다란 학술적인 도전이
였다.

그는 꾸준히 연구하여 7년
만에 선진적인 측정장치를 제
작하였다. 하여 우리 나라 역
사의 유구성과 문화의 우월성
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기
여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질
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고고학분야에서 또 하나의 개척
으로 되는 역사유적과 유물들의
보존연구에 달라붙었다.

목재와 철, 사기 등 각이한
재료로 이루어진 역사유적유물
들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하는
가 하는 것은 발굴사업 못지 않
게 중요하였다.

그것은 유적유물들의 보존연
구사업이 리론연구는 물론 시
약개발과 처리 등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연구과제이기 때문이었다.

한가정의 주부로서,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가정일의 부
담을 감당하면서 연구사업을 한
다는 것은 헐치 않은 일이었다.

연구과정에 여러 차례의 실
폐로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다잡으며 탐구의
날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 《역사유적유물보
존학》이라는 새로운 학파목도
개척하게 되었다.

역사유적유물보존학의 새 경

지를 개척한 그는 2024년에 혁
사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화학을 전공한 그가 지질학
에 이어 역사학박사학위를 받
던 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때 그는 《만약 전공이 다
르다고 이것을 외면한다면 후날
이 부분은 공백으로 남게 될것
입니다. 과학자라면 누구든 꼭
해야 할 연구사업이라고 생각
하고 이 길에 나서게 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4건의 국제학
술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제학
술토론회에도 여러번 참가하여
새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유적
을 두고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
사에 대하여 론리정연하게 변론
하여 전문가들을 놀래웠다.

그는 오늘도 자신에게 부단
히 도전하며 역사학의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고 있다.

글 김슬기
사진 김호



2018년 중국 연변대학에서
진행된 국제학술로론회에서 론플
을 발표하였다.



여러 질병치료에 좋은 5가지 산보법

- 보통산보법

분당 60~90보, 시간은 20~40분정도이다.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 뇌출중후유증이나 호흡기
계통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 궤속산보법

분당 90~120보, 시간은 30~60분정도이다.
류마チ스성 관절염, 위장염, 고혈압회복기에 들어선
환자들에게 필요하다.

- 뒤걸음산보법

등뒤에 있는 허리부위의 경혈을 손으로 누르면서 천
천히 50보 뒤걸음질한 후 다시 앞으로 100보 걸는다.
이렇게 뒤걸음질하다가 앞으로 걷는 회수가 5~10번
이면 경한 치매증이나 신경계통질병이 있는 로인들

에게 도움이 된다.

- 팔휘젓기산보법

두팔을 앞뒤로 비교적 크게 휘저으면서 분당 60~90보
걸는데 관절염, 폐기종 등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 배안마산보법

걸을 때 두손으로 배회전안마를 하면서 분당 30~60보,
매 걸음에 한번씩 회전안마를 하되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엇바꾸어 한다.

산보시간은 30~50분인데 위병이 있는 사람들에
게 좋다.

* * *



효능높은 의료기구개발로

나라의 보건부문의 물질기술 적도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들중에는 보건 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의료기 구연구소도 있다.

1963년에 발족된 연구소는 오늘까지 수십년간 수많은 의료 기구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치

료예방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 지하여왔다.

최근간에 소장 김동철을 비 롯한 이곳 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국내의 원료와 선진 과학기술에 의거한 효능높은 여 러가지 용도의 의료기구들과 의 료용소모품들을 개발하였다.

우고 연구를 심화시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각이한 의료기구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개선하는 사업과 동작의 안정성과 효률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서로 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치였 다. 그 과정에 원가가 적게 들 면서도 선진적인 여러가지 기술 들을 연구완성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최근년간에 자 외선치료기, 탄소호광치료기, 경추안마치료기 등 치료예방기 관은 물론 가정과 사무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의료기구 들을 개발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의료기구들은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 시회-2024를 비롯한 여러 전시 회들에 출품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정맥레이자치료 기, 전자직장경, 안파령동수술 기, 초음파창상세척기, 탄소호 광치료기용전극, 생체분해성마 그네시움합금 등 10여종의 의 료기구들과 의료용소모품들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집단은 김만유 병원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도입된 인공 호흡기 등을 새롭게 개신해줌 으로써 환자치료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을 비롯한 의료기구공장들에서 의 생산능력확장과 전반적인 생 산공정들의 정비보강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글 김수정
사진 리영칠

새삼씨왕벌꽃 단백영양제

면역강화와 피로회복,
로화방지에 특효!



락원 무역 총회사
락원경공업품생산소

위인의 모교라는 궁지를 암고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1동에는 1907년에 건립된 창덕학교가 있다.

나라의 보통교육부문에서 역사가 오랜 역사가 깃든 창덕학교는 오늘 3개의 교사로 된 현대적 건물에 다기능화된 교실과 각종 실험실들을 갖추고 나라의 역군들을 키워내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3년 4월부터 1925년 1월사이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신 사적이깃들어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학생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 있으며

그이께서 공부하시던 당시 학교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오랜 역사가 깃든 창덕학교는 오늘 3개의 교사로 된 현대적 건물에 다기능화된 교실과 각종 실험실들을 갖추고 나라의 역군들을 키워내고 있다.

학교에서는 최근년간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학생들의 실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실천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새 교수방법창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

물리강좌에서는 학생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과 그것을 현실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 실천 능력을 키워주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였다. 이 방법의 교육학적 효과성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기술, 외국어 등 다과목 교수 내용을 유기적으로 결합



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종합적 능력을 키워준다는데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체로 착상하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보도록 함으로써 사유능력, 창조적 능력, 실천 능력도 높여주고 있다.

수학, 정보기술, 생화학, 국어문학, 외국어 등 여러 강좌들에서도 교육발전의 추세에 맞게 수십 건의 실리 있는 교수방법들을 내놓았다.

그중 70여 건의 교수방법들이 전국의 보통교육부문에 일 반화되고 많은 교원들이 전국 교수경연과 전국 교수방법 토론

회 등에서 여러 차례 특등과 1등을 쟁취하였다. 이 과정에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 속에서 박사, 석사의 학위 학적 소유자와 함께 10월 8일 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 창조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교육사업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교수관리, 학생 관리, 성적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원들의 사업의욕을 높여 주고 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초급반 2학년

의 서재웅 학생이 과학 환상 모형 《농업용 로보트》를 창안한 것으로 하여 위포(WIPO) 국가 소년상을 수여 받았으며 고급반 2학년의 채준성, 서진성 학생들이 2025년 전국 제1중학교, 도외 국어 학원 학생들의 속독 및 기여력 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

오늘날 이 학교의 졸업생들 속에서는 나라의 권위 있는 교원, 연구사들뿐 아니라 영웅들도 배출되었다.

글 김대철
사진 김영호



학교에서는 최근년간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학생들의 실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다.



4월 15일 소년 백화원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4월 15일 소년 백화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지배인은 『우리 백화원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학생소년들과 인민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각종 식물과 원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는 파외교양기지, 문화정서생활기지로 꾸려졌는데 지난해에 개건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식물전시관으로 이끌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요구가 날로 높아가니 식물전시관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고 하면서 지배인은 우리에게 화초의 종류와 그 유익성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것이였다.

가정과 사무실들에서 많이 자래우는 흰줄접란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식물전시관앞에 이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식물전시관은 부모들의 손목에 이끌려온 어린이들이며 선생님과 함께 온 학생들, 청춘남녀들, 로인들로 흥성이고 있었다.

종합식물관, 열대식물관, 온대식물관, 한대식물관으로 구

분되어 있는 식물전시관에는 150여종에 3 000여점의 관상용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해살마냥 잎을 활짝 펼친 흰 줄통설란, 연분홍의 꽃이 떨기 떨기 피여있는 엽자화, 꽃바구니 모양의 천남덩굴…

이렇게 갖가지 식물들이 전시된 종합식물관은 울창한 숲 속에 들어선 듯한 감을 주는데 분수수조에서 유정하게 들려오는 물소리가 상쾌한 기분을 더해 주었다.

정면벽에 설치된 TV에서는 식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매체 편집물이 방영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수십 종의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열대식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열대림을 방불케 하는 열대식물관에서는 안내원로보트가 식물들의 모양과 특징, 그와 관련한 건강상식을 우리 말과 함께 외국어로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30년 자란 종려나무앞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관리원들에게 재배방법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열대식물관을 지나 우리는

온대식물관에 들어섰다.

각양각색의 식물들로 아담하게 꾸려진 온대식물관은 한폭의 그림 같았다.

온대식물관에는 자주닭개비, 새우꽃 등 90여종의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붉은 장미가 활짝 피여난 화분대 앞에서 청춘남녀가 꽃향기에 심취된 듯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데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우아하게 일새를 펼친 비파나무를 보며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런 속에 대성구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왔다는 10살 난 소녀가 관리원에게 이것저것 열심히 묻고 있었다. 보는 것마다 희귀해서인지 엉뚱한 물음을 제기하는 소녀에게 관리원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머루알 같은 까만 눈동자를 깜빡이다가 때로는 손뼉을 치며 환성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갸웃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미소가 피여올랐다.

수십 종의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한대식물관에서도 사람들은 『숲』의 세계에 파묻혀 있었다.



학생소년들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식물전시관에 와서 이미 알던 지식을 실물로 보면서 익히니 정말 좋다고, 식물과 화초재배상식을 넓혔다고,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에 좋고 관상적 가치도 큰 식물을 많이 키우겠다고 한결 같

이 말하였다.
그 모습에서 더더욱 아름다워질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그려보며 우리는 식물전시관을 나섰다.

글 강진성
사진 리영철

건강에 좋은 검은도라지제품들



건강에 좋은 검은색식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검은도라지와 그것을 활용한 건강식품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말에 진행된 제17차 평양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서 검은도라지와 검은도라지오미자즙, 검은도라지구기자즙을 비롯한 농축즙제품들, 검은도라지차, 검은도라지꿀이 인기를 모았다.

검은도라지의 개발자인 류홍무역회사 모란봉락원경공업품생산소 소장 김혜옥은 관심을 표시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소개하였다.

『검은도라지는 도라지를 발효와 숙성을 거쳐 가공하는 과정에 자연적으로 검은색으로 변한 천연기능성식료품입니다. 가공과정에 도라지의 약효성분들이 최대로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얻어낸 검은도라지는 일반도라지에 비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도라지를 인삼에 비유한다면 검은도라지는 홍삼에 비유할수 있습니다.』



검은도라지제품의 일부

일반적으로 도라지에는 사포닌함량이 많고 당질, 단백질, 기름질, 비타민, 칼리움 등이 들어있어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감기와 기침, 편도염, 인후두염예방과 치료에 널리 이용하여왔다.

생산소에서는 금강산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산들에서 채취한 도라지를 생물공학적 방법과 전통적인 고려약제조방법으로 가공하여 검은도라지를 얻고있다.

이렇게 얻어낸 검은도라지는 일반도라지보다 사포닌함량이 10배이상 높고 폴리페놀파 플라보노이드, 이눌린 등 생리활성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어 호흡기질병예방과 치료, 면역제고에 좋다.

특히 천연인슐린으로 불리우는 이눌린함량이 증가되어 당뇨병치료에 특효가 있으며 그 맛 또한 독특하다.

검은도라지는 202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를 받았으며 그 제조방법은 2024년에 진행된 제37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생산소에서는 검은도라지를 리용하여 수십 가지의 건강식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2024년과 2025년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시에서 진행된 전람회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글 김성경, 사진 김호

상식

24절기의 유래

24절기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아가는 자리길을 24개로 나누어 설정한 계절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여오던 력서는 달의 모습변화에 기초하여 만든 음력(태음력)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동지로부터 시작하여 해질을 12등분한 점을 중기라고 하고 중기와 중기사이를 절기라고 불렀으며 여기에 계절에 맞는 적합한 이

름을 붙이고 12개의 중기와 12개의 절기를 합하여 24절기라고 불렀다.

24절기에는 립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꾸우, 립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립추, 쳐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립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이 있다.

* * *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

지난해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많은 메달들을 획득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였다.

2025년 2월 타이에서 진행된 2025년 아시아컵보총 및 권총사격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3개를 포함한 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3월에 진행된 2025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였다. 방철미선수는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1kg급 경기와 지난해 52kg급 경기에서 우승하여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로 되었다.

년초에 사격선수들과 여자권투선수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데 뒤이어 레스リング선수들도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쟁취하여 자기들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2025년 17살 및 23살미만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도 훌륭한 경기성과를 보여주었다. 금메달 3개와 2개의 동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본 전문가들은 조선선수들의 기술수준이 높고 경기성과도 대단하

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흐르바쓰까에서 진행된 2025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3개를 비롯하여 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여자단체복(2위)을 수여받았다.

2019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 이후 6년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지만 압도적인 기술적 우세와 어깨닿기로 경기들을 보기 좋게 결속하였다. 이 대회에서 3명의 세계선수권보유자가 배출되었다.

마라손종목과 빙상종목경기에 참가한 선수들도 평시에 련마한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제20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에서 한일룡선수는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고 리광옥선수는 여자마라손경기에서 2위를 하였다.

우리 나라의 선수들은 2025년 아시아공개컵빙상휘거경기대회 쌍경기에서 2위를, 성인급 남자개인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국제력기련맹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2025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선수권대회 나라 및 지역별메달순위에서 우리 나라 남, 여력기팀들이 각각



**2025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선수권대회
나라 및 지역별메달순위에서 우리 나라
남, 여력기팀들 각각 1위를 쟁취**



로팡렬, 박명진, 송국향선수들 2025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2025년 국제권투련맹 세계여자권투선수권대회 52kg급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나라의 방철미선수



원명경, 오경령, 환성송선수들 2025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세계선수권 보유



**제23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46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74개의 메달과
종합우승컵을 쟁취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선수권대회는 국제력기련맹의 결정에 의해 남,녀선수들이 각각 10개의 봄무계급경기로 나누어 진행하던 이전과 달리 8개의 봄무계급경기로 구분함으로써 남,녀봄무계급이 새로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였다.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7개를 포함한 2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10건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국제력기련맹은 선수권대회에서 조선이 세계력기계의 첫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음을 뚜렷이 실증하였다고 하면서 조선팀은 2023년에 세계력기무대로 복귀한 후 여러 국제경기에서 확고한 우세를 보여주었다고 전하였다.

외국의 언론들도 선수권대회가 막을 올린 후 조선녀자선수들이 신기한 위력을 발휘하며 앞선 5개 봄무계급에서 도합 15개의 금메달 중 14개를 수중에 장악하였다고 격찬하면서 최근년간 국제경기들에서 조선선수들이 세계기록과 기준기록들을 련이어 돌파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제23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는 46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74개의 메달과 종합우승컵을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다.

바레인에서 진행된 제3차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은 킥복, 권투, 레스링, 력기경기에서 금메달 8개를 비롯하여 15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지난해 우리 인민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축구였다. 마로끄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25년 17살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
국제축구련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
대회에서 영예의 1위 쟁취**



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은 영예의 1위를 하고 네번째로 월드컵을 들어올리었다. 우리 선수들은 유럽의 강팀으로 알려진 네데를란드팀과의 결승경기에서 3:0으로 이기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 조별련맹전경기부터 시작하여 결승경기에 이르는 7차례의 경기에서 25개의 득점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최강팀으로서의 실력을 다시금 과시하였다.

글 김일봉
사진 조선중앙통신



국제축구련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 대회에서 금메달과 금축구화상을 받은 유정향선수와 은메달과 은축구화상을 받은 김원심선수

새집들이풍습에 비낀 어제와 오늘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2026년 첫호에 우리는 누구나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는 조국의 새집들이풍습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집들이라는 말은 새집에 이사하여 듣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이웃에서 집을 지을 때면 마을사람들이 떨쳐나 성의껏 도와주고 집들이를 할 때에 도 역시 온 마을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집들이풍습에 대해 생각하느라니 지난해 10월 조선동해명승의 풍치를 돋구며 한폭의 그림마냥 솟아오른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리의 새 마을이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마을에 도착하니 마침 그곳에서는 새집들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새집의 주인들은 다름아닌 염분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바다가지역의 특성에 맞게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새 살림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았습니다.

우리는 사진기렌즈에 새 보금자리의 주인들만이 아니라 이사짐을 함께 날라주는 사람들, 흥겨운 농악무를 펼쳐놓은 사람들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염분농장 경리는 우리를 어느한 집으로 이끌었는데 여든살을 훨씬 넘긴 한 토배기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집 한채 짓는것이 어디 헐한 일이였습니까. 그러나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난 다섯 번이나 새집으로 이사를 했수다. 그런데 이번에 더 좋은 새집에 또 이사를 왔으니 우리 맏아들의 말대로 내가 집복이 있는것같습니다.》

로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막내아들네 식구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랑군에서 살고있다는 막내아들은 부모들과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새집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입을 다물줄 몰랐습니다. 한참후에야 불이 잘 드는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앉은 그는 가방에서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해주려고 가지고온 물건

들을 하나둘 꺼내놓는것이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난해 어랑군에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고있는 물고기가공품과 가정용품들도 있었습니다.

『새집들이에 올 때에는 성냥을 빼놓을수가 없지요.』

아들의 이 말에 새 집안에 더욱 화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나지금이나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전통적인 새집들이풍습이 련연히 이어져가고있다는것을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8월 새집들이풍습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것만 보아도 더 잘 알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실장 조일경은 우리 인민의 새집들이풍습은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는 관습적인 행위와 그와 련관된 수단, 문화적공간을 포함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집짓기를 농한기에 하는것이 일반적인 일로 되여왔으므로 새집들이도 대체로 바쁜 농사철이 지난 다음이나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였다고 합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짓는것은 많은 자금과 로력, 시간을 들여야 하기때문에 새집들이도 한두집을 단위로 진행되곤 하였습니다.

새집들이때에는 이웃들이 도와주고 축하해주었는데 그들은 성냥이나 바가지 등을 들고갔습니다.

사실 성냥을 가져다주는것은 불을 지피는데 리용되는 부시를 가져가던 관습에서 생겨났습니다. 한것은 불이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

을 조리하며 집안의 조명을 보장하는 원천인 동시에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건으로 사람들속에 인식되어있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새집들이에 바가지를 가져가는것은 그 집의 운이 번창하거나 바가지로 쌀을 퍼담듯 모든것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소박한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지금도 새집들이하는 날이면 이웃들이나 친척, 친우, 동료들이 이사짐을 날라주거나 새 살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물건을 가져다주는것을 레의로 여기고있으며 또 주인은 그에 대한 답례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새집들이를 맞으며 농악무나 춤판이 펼쳐지는 것은 농촌지역들에서 볼수 있는 특색있는 광경입니다.

새집들이를 하는 가정들에서는 기념으로 새집과 새 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밤 깊도록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으로 하여 새 거리나 새 문화주택지구에 집체적으로 새집들이를 하는 풍경이 생겨났습니다.

현시기 수도와 지방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수많이 건설되어 인민들에게 차례집으로써 새집들이풍습은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확대장려되고있습니다.

이렇듯 계절이 따로없이 펼쳐지는 조국의 새집들이풍경은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계승해가고 있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도 함께 어울려있어 그 토록 인상깊은것입니다.

글 연옥, 사진 리철



세계자연공원 백두산천지구(5)

장군봉의 버섯모양암체



장군봉의 버섯모양암체는 백두산천지분화구의 동남쪽에 있다. 장군봉화산은 폭발성분출과 흐름성분출이 여러 차례 엇바뀌면서 진행되어 이루어졌다. 이때 흘러나온 용암은 주로 조면영안암이다.

화산체가 함몰되면서 천지쪽의 장군봉이 떨어져내려 약 85° 의 급경사를 가진 절벽이 이루어졌다.

이 절벽에 백두산화산분출 5단계에 점성이 큰 류문암질암장이 거의 수직인 균열을 따라 올라오다가 굳은 천반암석을 뚫지 못하고 그것을 밀어올리면서 생긴 층사이에 주입되어 버섯모양으로 굳어진 암체가 명백히 나타난다.

천지쪽에서 보면 이 분출물은 버섯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버섯》기둥의 직경은 5~7m, 《버섯》갓의 너비는 50~55m, 높이는 최고 34m이다.

장군봉의 버섯모양암체는 화도를 따라 올라온 암장이 지층들사이에 주입되는 현상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지질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룡마바위

룡마바위는 삼지연시 백두산밀영동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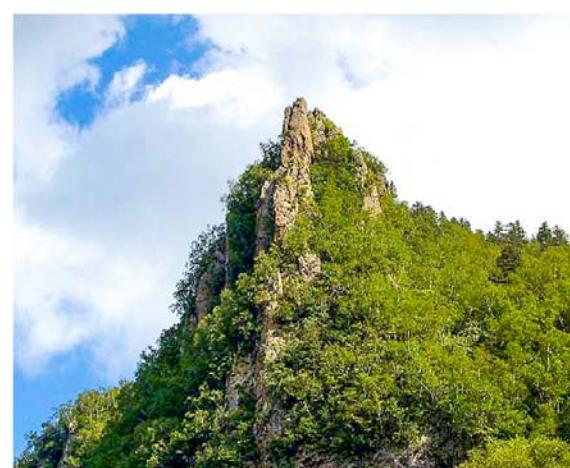
룡마봉의 북쪽에 있는데 조면암질용암으로 된 화산체가 단층에 의하여 잘리워져 생긴 바위이다.

조면영안암에는 크기가 $4 \times 5\text{mm}$ 인 투장석 반정이 30~40% 들어있다.

룡마바위는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장검바위의 옆에 있다.

장검처럼 생긴 바위는 장수가 룡마를 타고 장검을 휘두른다는 의미를 담아 장검바위라고 하고 그옆에 있는 바위는 룡마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룡마바위는 정일봉주변에 발달하는 기암지질유적들의 형성과 단층의 운동특성을 연구하는데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천군바위

천군바위는 소백수가 압록강에 합류되는 곳으로부터 압록강을 따라 상류로 약 6km 올라가서 볼 수 있다. 천군바위는 곰산의 남서쪽에서 압록강계곡의 동쪽벽을 이루며 압록강을 따라 수km구간에서 기묘한 절벽을 이루고 있다.

천군바위를 바라보면 마치 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출지어서 있는 듯하다.

천군바위는 백두산형성의 마지막단계에 분출한 화산쇄설물이 쌓여 생긴 흑색용결옹회암이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깎아 세운 듯한 절벽으로 련속되어 있어 압록강계곡의 풍치를 이채롭게 해주는 지질 유적이다.

바위들의 평균높이는 수십m이고 평균폭은 20~30m이다.

천군바위는 백두산화산의 독특한 지질, 지형학적현상을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위봉우리들과 깎아세운 듯한 절벽으로 련속되어 있어 압록강계곡의 풍치를 이채롭게 해주는 지질 유적이다.

간백산소금바위



간백산소금바위

간백산소금바위는 간백산에서 화산재와 조면암질부석이 열운형식으로 분출하여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두텁게 쌓이고 약하게 엉켜붙은 다음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바위이다. 바위가 형성될 때 분출물속에 알카리금속인 나트리움과 칼리움이 풍부히 들어있고 염소가스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이 암석속에 소금기가 축적되게 되었다. 산집승들이 염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든다고 하여 소금바위로 불리우게 되었다.



북포태산의 용암바위

북포태산에 있는 특이한 기둥모양의 용암바위이다.

약 61만년전에 조면암질암장이 균열형의 화도를 따라 올라오다가 분출이 멎으면서 화도안에서 그대로 식어 굳어진 후 오랜 지질학적시기를 경과하면서 화도주변의 암석은 풍화되어 없어지고 화도안의 암체만 남아 기묘한 모양을 이루었다.

다른 나라의 화산지역들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지질유적으로서 북포태산화산의 균열형화도연구에서 의의가 있다.

* * *

《훈민정음》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보들중에는 선조들의 술기의 산물인 《훈민정음》도 있다.

《훈민정음》은 1444년 1월 학자들에 의하여 창제되었다.

《훈민정음》이란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라는 뜻이다.

창제당시 기본글자수는 자음 17자, 모음 11자, 모두 28자였다.

오늘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그것들의 기원을 놓고 보면 해당 나라가 글자를 자체로 만든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글자를 모방하여 변형시켜 만든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글자로서 여러가지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훈민정음》(해례)

우선 발전된 류형의 글자인 자모글자라는데 있다.

세계글자류형에는 그림글자, 뜻글자, 소리글자 등이 있다. 소리글자는 음절글자와 자모글자로 구분되며 그중에서 가장 완성된 글자는 자모글자이다.

《훈민정음》은 말소리와 글자의 호상관계, 우리 말의 자음과 모음을 깊이 연구조사한데 기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절들이 잘 나타나게 되어있다.

《훈민정음》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의 말을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고 바람소리, 시내물소리, 각종 짐승소리 등 자연현상의 소리들도 거의다 표현할 수 있다.

우수성은 다음으로 글자를 만든 원리가 과학적이라는데 있다.

《훈민정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는 독특한 원리로 만들어졌다. 창제자들

은 혀, 입술, 목구멍 등을 비롯한 사람의 발음기관이 소리를 낼 때 변화되는 모양을 본따서 기본글자를 만들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파생된 글자들도 체계성 있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누구나 배우기 헐하고 쓰는데 편리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우수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훈민정음》에 대하여 《천하의 소리를 다적을수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통달할수 있고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흘이면 다 배울수 있다.》라고 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만일 말과 문자로 문명수준을 쟁다면 조선이 지구상에서 단연 앞자리에 설것이다. 그 글자는 간단하고 표현능력이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언어학계에서 제노라 하는 유럽의 한 대학에서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세계 모든 글자의 순위를 매겼을 때 조선글이 단연 첫자리에 올랐다.》고 평한 것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다 적을수 있고 인간의 감정정서를 방불히 표현할수 있으며 언어정보자료의 기록에도 유리한 조선어는 《훈민정음》에 뿌리를 두고있다.

글 김대철
사진 김영철

해뚫음무늬금동장식품

해뚫음무늬금동장식품은 고구려시기의 높은 금속공예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혁사유물들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뚫음무늬새김법과 도금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이 장식품은 평양시 혁포구역 통산리7호무덤 유적에서 발굴되었다.

장식품은 복숭아씨를 절반 잘라 한쪽을 조금 기울인것과 같은 모양의 얇은 동판에 여러가지 무늬를 뚫어새기고 금으로 도금한것으로서 길이가 22.5cm이다.

장식품의 전면에는 타오르는 불길모양의 구름무늬와 봉황무늬가 서로 결합되어 뚫음무늬로 새겨져있으며 그 가운데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안에는 해를 상징하는 세발달린 까마귀(삼족오)의 모습이 새겨져있다.

금동장식판뒤에 붙인 나무판대기는 두께가 1cm정도인데 금동장식과 나무판대기사이에 금록색딱장벌레의 나래를 깔아 바

탕을 만들었다.

장식품의 헤두리부분에는 돌아가면서 딱장벌레의 나래를 깔았으며 나래딱지에는 윤택있는 금록색 및 진록색바탕중심에 세로 자홍색의 가는 줄이 두줄로 된 나래장식을 형상하여 장식품을 더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생활에 도입하는 과정에 특수한 장식수법들을 창안하여 이용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금동장식품에 새겨진 무늬들과 장식적효과들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마치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는것처럼 생동하게 형상된것으로 하여 립체감을 강하게 주고있다.

해뚫음무늬금동장식품은 고구려시기 금속공예기술의 발전적면모를 보여주는 독특한 예술작품으로서 국보로, 자랑으로 되고있다.

글 김일봉

해뚫음무늬금동장식품
(4세기말-5세기초)





표준음-12률관을 정립한 박연



악공은 능히 제가 가르칠수 있다고 박연에게 말했다.

박연은 거기서 힘을 얻고 악공이 지적한 부족점을 고치기 위하여 정력을 쏟아부었다. 저대에 정신이 팔려 때식을 잊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며칠이 지난 후 박연은 또다시 악공을 찾아가 저대를 가락좋게 넘기였다.

그러자 악공은 크게 감동되었다.

술한 사람들에게 저대를 가르쳤지만 이렇게 쉬이 깨닫는이가 없었던 것이다.

악공은 직접 저대를 불어가면서 박연에게 하나하나 가르쳤다.

얼마후 박연은 다시금 악공을 찾아갔다. 악공은 그만 무릎을 치며 자기로서도 당해낼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여 박연은 음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벼슬길에 오른 그는 왕의 신임을 얻어 음악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구수한 흙냄새를 맡으며 성장한 박연의 노래는 서정이 짙고 부드러우며 백성들의 마음에 맞았다.

이때로 말하면 우리 나라의 음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고 있던 때였다.

그가 음악분야를 맡아보면서 처음 시작한 것은 음악을 정리하는것이였다.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는 음악은 고려말기에 들어서면서 외적의 침입과 국내질서의 혼란으로 많이 문란해졌고 악기들은 대부분이 마사져있었다. 또한 악단과 연주가들도 살길을 찾아 곳곳으로 흩어져버렸다.

그러나 박연은 조금도 탓하지 않고 미흡한 점을 가르쳐달라고 날마다 그 악공을 찾아다녔다. 며칠후 박연은 다시금 악공앞에서 저대를 불었다.

그는 왕에게 청하여 악기도감을 설치했다. 그런데 중요한 난점이 있었다. 그것은 악기도감에

서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내여도 음률들간의 차이가 생겨 합주를 할수 없는것이였다. 이를 해결하자면 표준음을 정해야 하였다.

박연은 이를 위해 기초음을 규정하는것과 함께 표준음으로서 12률관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12률관이란 12개의 고정된 음들의 높이를 말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여있어야 그것을 표준으로 하여 악기들의 조률도 할수 있었다.

이것 없이는 악기제작도, 음악창작도, 음의 기록도 불가능하였다.

박연은 여러 차례 거듭되는 실험을 해가며 음의 높낮이를 정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의 것과 지금까지의 우리의 표준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렸지만 박연은 얼토당토않은 견해에 절대로 숙어들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박연은 이때부터 12률관에 맞추어 현습용악기들과 연주용악기들을 만들었다.

이 음률에 의해 민족악기들의 률이 규정되고 고착되였으며 악보기록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작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박연에 의해 이 시기 독특한 음악표기방법인 정간보도 발명되었고 기존의 악기들이 새로운 음률에 의해 개량되였으며 관리통에 없어졌던 악기들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연은 또한 음악창작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기울이였다.

그의 대표작들은 대체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민족적선률에 기초한것으로서 정서가 깊고 향취가 흐르는것이 특징적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자기의 예술을 음악에만 국한시킨것이 아니라 무용을 결합한 예술로 만들었다.

이처럼 박연은 평생 음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공적을 세운 중세의 음악가로 력사에 그 이름을 남기였다.

* * *



장기수풀이 (37)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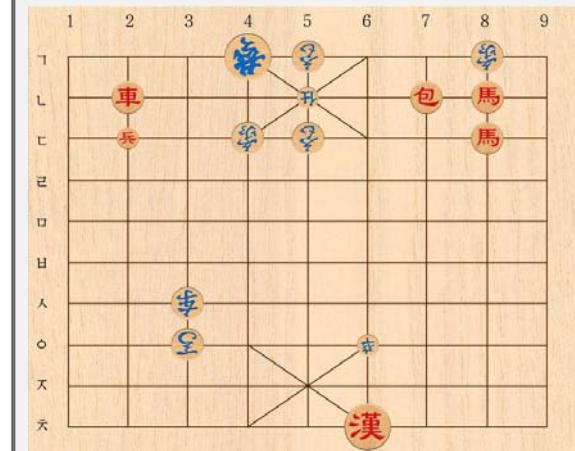
외줄단명

이 말은 졸이 홀로 있거나 상대방구역에 홀로 들어가있으면 언제 잡혀죽을지 모른다는 위험성을 뜻하고있다.

하여 예로부터 장기현실에서 졸은 합졸이라는 말이 통용되고있는데 이 말도 졸이 홀로 있으면 인차 죽는다는 뜻으로서 졸은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언제나 린접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장기수풀이 (36)에 대한 답

ㅈ9포ㄱ9, ㄴ5사ㄱ6, ㄱ8말ㄷ7, ㄱ6사ㄴ5,
ㄷ7말ㄱ6, ㄱ5궁ㄱ6, ㄹ9상ㄱ7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